

# 대형서점의 대명사는 '문고'인가

이승우 편집주간

얼마 전만 해도 서점은 그냥 '책방'이라 불리어 좋았다. '책방'이라면 정년퇴직한 교사나 도서관 사서, 혹은 나이 지긋한 문화애호가 수지타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으며 이따금 찾아드는 단골고객과 유유히談笑하는, 그런 목가적인 살롱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서점이 단순한 '책방'이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같은 산업화·정보화사회에서는 서점은 다양한 사상과 지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정보의 유통시장으로서의 구실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한해에 2~3만종씩 쏟아져 나오는 신간도 서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독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점의 존재양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렇기에 서점이 자꾸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

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문화역량과 지식의 積量이 그만큼 커졌음을 가지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

그런데, 최근들어 새로 문을 연 대형서점들이 그 상호에 한결같이 '문고'란 이름을 달고 있어 흥미롭다. 서점 '문고'의 元祖는 81년에 개점한 '교보문고'다. 그후 86년에 '신촌문고'가 생기더니, 울들어서는 '한가람문고' '뉴코아문고' '광복문고'(부산) '서울문고' '교민문고' '세종문고' 등 새로 생긴 대형서점마다 모조리 '문고'여서 이젠 하나의 유행처럼 돼버렸다. 이들 '문고'들은 대체로 200평 이상의 큰 서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문고란 원래 '책이나 문서를 넣어두는 곳'이란 뜻이다. 그것이 轉化되어 장서나 컬렉션을 의미하게 됐고, 근대에 오면서 오늘의 도서관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마치 영어의 Library 가 '책꽂이'나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는 라틴어의 Librarium에서 파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쓰는 '학급문고'나 '새마을문고'나 혹은 「六堂文庫」(고려대)나 하는 말을 연상하면 '문고'의 제 뜻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물에서 '문고'란 다 아다시피 '값싸고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한 판형과 장정으로 발행하는 총서'를 일컫는다. 이 '문고'란 이름이 출판형식에 원용되기는 1867년에 창간된 독일의 「레클라프 세계문고」가 효시이다.

현재 전국에는 4,681개의 서점이 있다. 그 상호를 일별하면 '서점'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밖에 '서적·서림·도서'등이 눈에 띈다.

'문고'란 상호가 '서점'에 비해 어딘가 하이브로우하고 상업주의가 탈색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점이름에 '문고'란 아무래도 어색하게 느껴진다. 언어의 굴절은 곧 문화의 굴절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글쎄, 어떨는지.

# 출판저널

통권 제32호/1988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트 — 朱明德  
사진 — 金惠敏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인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 ~ 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潯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腹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元植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 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들의 정답을 12월25일 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4호(89년 1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이밍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 1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성경은 서기 350년 이전에 간행된 이른바 「바티칸 寫本」이다. 현재 이 성경은 로마의 바타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성경은 다음 중 어떤 언어로 씌어진 것인가?

1. 그리스어
2. 라틴어
3. 영어

### 문제 2

오늘날 「영어사전」에 있어서 영어학자들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전은 다음 중의 어느 것일까?

1. Oxford English Dictionary

2. Webster English Dictionary
3. Samuel Johnson English Dictionary

### 문제 3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양문학 작품은 무엇인가? 이 소설의 작가는 영국인이고, 번역한 사람은 영국 선교사 제임스 게일 부부로서 1895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며, 소설의 형식은 寓意小說로서 1678년에 제1부가 영국에서 발표되었다.

1. 천로역정
2. 레미제라블
3. 몽테 크리스트백작

### 문제 4

한글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이 소설은 조선왕조 광해군 때의 것이다. 정승의 서자인 주인공이 활빈당을 만들어 양반 계급을 괴롭히고, 뒷날 琉球國의 왕이 된다는 내용이다.

1. 금오신화
2. 홍길동전
3. 허생전

### 제30호 독서퍼즐 정답

「독서퍼즐」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호(11월5일자) 퍼즐에 응답해 온 엽서는 85통, 이중 정답은 7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1. ①책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1895년 미국의 월간문예지 「Bookman」이 미국 19개 도시의 서점에서 신간서적 중 가장 잘 팔린 책 8권을 조사 선정해서 「베스트셀러표」를 발표한데서부터 시작됐다.

### 2. ①나무의 속껍질

라틴어에서 나무의 丙皮를 가리키는 Liber가 도서관을 뜻하는 영어의 Library의 어원이 되었다.

### 3. ②군인과 승려

스탕달이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남자라면 출세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거나 승려가 되는 길 중 하나를 택했다. 붉은 것은 군복 색깔이고 검은 것은 승복의 색깔이기도 하다.

### 4. ③바이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내가 유명한 것을 알았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 5. ②부활

그날 점괘가 나온대로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카추샤와 네프뤼도 프공작을 결혼시키지 않았다. 톨스토이는 기묘한 미신벽을 가졌다고 하는데, 특히 28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았다. 그가 태어난 날이 1828년 8월28일이고, 군대에 입대한 것이 1825년 1월28일, 그 유명한 가출일은 82세 때인 1910년 10월28일 새벽이다.

### 당첨자

문헌식(전북 군산시 사정동 518)  
최은재(수원시 권선구 교동 산 3-1 수원시립중앙도서관 내)  
김철희(서울 강동구 성내동 510-10)  
박성종(서울 노원구 창2동 609-164)  
안경희(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 2리 487-3)